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



Tel. 213-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 WWW.CHDAILY.COM THURSDAY, March 3, 2022 Vol. 804

LA카운티교협 제4대 회장 강신권 목사, 이사장 김정한 목사 취임

엘에이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 (이하 엘에이카운티교협)는 지 난 20일, 나성제일교회(담임 김 성지 목사)에서 제4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을 갖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강신 권 목사, 신임 이사장으로 김정 한 목사가 취임했다.

신임 대표회장 강신권 목사는 "엘에이카운티교협의 제4대 회 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데, 분 과별 부서와 많은 일꾼이 필요하 다. 맡겨진 임기 동안 교협의 기 반을 견고히 세우는데 헌신하고 자 한다"며 "미국 전체에서 더 나아가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 인 교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신임 이사장 김정한 목사는 엘에이카운티교협를 통해 엘에 이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가 예 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화, 기 쁨의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한



엘에이카운티교협 제4차 정기총회 및 대표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기념촬영 ⓒ기독일보

다"며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천 사의 도시인 엘에이에서 다시금 시작되길 소망한다"고 취임 인 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엘리야 김 목사(엘에이카운티교협 부회장)의 사

회로 박정희 목사(OC한인여성 목사회 회장)의 기도에 이어 이 호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 회 증경회장)가 "웃으면 복이 와 요"(잠14:30)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호우 목사는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 받은 그 리스도인들은 넘치는 기쁨과 감 사로 살아야 한다"며 "기쁨과 웃 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엘에이 카운티교협 신임원단을 축하하

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

반(49%)은

"너무 이르

다"라며 판

단을 유보했

고, 14%는 '

대통령으로

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격려해 달라"고 전했다.

예배에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 강신권 목사는 직전 대 표회장 류당열 목사에게 공로패 를, 신임이사장 김정한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엘에이카운 티교협 고문 변호사로는 이승 우 변호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LA협의회장)와 박영선 변호 사가 위촉됐으며, 크리스천 비 전신문사 대표인 이정현 목사는 엘에이카운티교협으로부터 '자 랑스런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축사는 이승우 변호사와 이정현 목사(한기총미주총회 대 표회장), 임덕순 장로(전 미주복 음방송 사장)가 전했으며, 이어 최학량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증경회장), 진건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격려 사를 전했다. 총회는 홍영환 목 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 경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바이든 지지율, 미 흑인 개신교인 1년새 92→65% '뚝'

미국 퓨리서치센터 보고서 발표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 통령의 직무평가 긍정률이 흑인 개신교인 사이에서 1년새 30% 가까이 하락했다.

퓨리서치는 올해 1월 10일부 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5,128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 다. 그 가운데 흑인 개신교인 중 65%가 바이든의 직무 수행을 지 지해, 2021년 3월에 보고된 92% 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다.

퓨리서치 보좌관 저스틴 노티 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민주당 의 가장 충성된 지지층인 흑인 개신교인과 무신앙인 - 두 집단 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에서 흑인 개신교 인은 10명 중 9명(91%), 무신앙 인은 10명 중 7명(71%)이 바이 든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역대 두 번째 가톨릭 신 자인 바이든은 가톨릭 교인들 사 이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미국인 가톨릭 신자 중 46% 가 "바이든의 직무수행을 지지

한다"고 답해 2021년 3월 보도 된 56%보다 낮아졌다. 반면, 히 스패닉계 가톨릭 신자들은 백인 신자들보다 바이든의 직무수행 을 더 높이 평가했다.

또 백인 복음주의자 중 14%가 바이든의 직무 성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3 월 22%에서 감소한 수치다.

바이든에 대한 백인 개신교인 의 지지율도 지난해 3월 40%에 서 올해 1월 31%로 떨어졌다.

종교를 가진 응답자 중 흑인 개신교인은 35%가 '바이든이 성 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 령 ⓒWhite House/ Lawrence Jackson

이와 대조적으로, 백인 복음주 의자 그룹은 7%만이 '바이든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한 반면, 78%는 '실 패한다', 15%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지난해 퓨 보고서는 바이든 행 정부 아래에서 영향력을 얻을 종 교 집단으로 '흑인 개신교인'과 흑인 복음주의자' 그룹을 꼽았다.

두 그룹 모두 55%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서 영향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답했으며, 흑인 개신교 인 중 4%, 흑인 복음주의자 중 5%만이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 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1월 말 바이 든이 사상 첫 흑인 여성을 지명 할 것이라고 약속할 당시에 실시 김유진 기자

www.marhlaw.com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어느분야보다도상법에서는지략과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이로움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게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뱉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 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면/전화상담예약 213_820_3704

사무실: 213,487,9190 Fax: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ye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7대 회장에 이영수 장로 취임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7 대 회장으로 이영수 장로가 취 임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이하 남가주 장로협)는 지난 27일,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역 교계 연합 과 부흥을 위해 힘쓸 것을 다 짐했다.

취임사를 전한 이영수 장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보 고 남가주 장로님들과 함께 기 도와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길 소망한다"며 "인류의 소망, 교회 의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 도만을 바라보며 남가주 장로님 들과 함께 이웃을 살피는 장로 협의회,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 는 장로협의회, 한국 교회에 희 망을 주고, 미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남가주 장로협의회가 되 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47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 진 상화 장로도 이날 축사를 보내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의 적극 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유례없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

를 겪고 있지만 두 단체가 상호 진상화 장로는 "모든 교회가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자"며 한

국에서 열리는 42차 정기 총회 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감사예배는 오승홍 장로 의 사회로 최형호 장로가 기도 한 후,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대하 14:1~6)라는 제목 으로 설교했다.

장진영 교수의 '축복하리라', 남가주장로성가단중창단의 '은 혜' 특별 찬양에 이어 LA교협 회 장 강신권 목사, 한기총 미주총 회장 이정현 목사가 축사를 전 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 진 상화 장로를 대신해 증경회장 하기언 장로가 직전회장인 정도 영 장로에게 공로패를, 신임 회 장인 이영수 장로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영수 장로 역시 정 도영 장로에게 공로패를 전달하 고 하형숙 권사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동욱 기자

OC목사회 신임 회장 박용일 목사 "성경적 가치 회복해야"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제44대 이 · 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지 난 20일 남가주 프라미스교 회에서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남가주 오렌지카운 티 지역 목회자들의 연합과 목회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다 짐했다.

박용일 목사는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 하고, 반 성경적이고 세속적 인 세계관에 맞서 성경적 가 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렌지카운티목사회는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 랑으로 섬기는 목사회가 되 길 소망한다"고 취임사를 전 했다.

이날 예배는 박정기 목사 의 사회로 손태정 목사의 기 도 후 신원규 목사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왕상 19: 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신원규 목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이세벨의 소리에 집중할 때 그는 담대히 외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됐다"며 "복음을 전할 때 맞이하는 고난과 시 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 리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세 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되자" 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주최, 남가주 지역 통큰통독세미나 개강

말씀이 삶이 되는 도이도하

2022 상반기 미주 16주과정

내용: 90일 동안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독 대상: 성경 일독을 원하는 모든 성도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쉬지 않고 16주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 119:28

오전반

에스라 성경통독사역원이 주최 하는 통큰통독세미나가 2022상 반기 미주 16주 과정이 오는 3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성경 일독을 원하는 모든 성 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통큰 통독세미나는 90일 동안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경을 한번 완독하게 된다.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은 " 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올바르 게 회복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 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능 력"이라며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 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삶의 방향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줌 온라인 라이브 강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과 의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150달



OC 지역 기관 · 단체장 초청 조찬 기도회 개최

제8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 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오렌지 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이하 OC 교협)와 OC 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 장 로)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은 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 모인 120여 명 의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정 계, 각 단체 지도자들은 ▲미국 과 한국을 위해▲러시아의 침략 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세 계 평화를 위해 ▲오렌지카운 티 지역 각 사회 봉사 단체를 위 해 ▲3월 9일에 실시되는 조국 대한민국 대선을 위해 기도했 다. 또 ▲차세대의 성공과 믿음 의 계승을 위해 ▲OC 교협과 목 사회, 장로 협의회, 전도회 연합 회, 각선교기관등교계사역단 체의 활성화를 위해 ▲신학교와 교육 기관을 위해 ▲한인 정치



제8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기독일보

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 간 절히 기도했다.

기도회에 앞서 심상은 목사 홍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김생 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한기 수 장로(OC 장로협의회 회장)가

기도한 후 신원규 목사(OC 교협 이사장)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다"(엡 5: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도회는 윤성원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한기홍 목 사는 "기도하는 공동체에 미래 와 희망이 있다"며 "우리가 살 고 있는 미국의 영적인 타락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 자"고 전했다.

설교를 전한 신원규 목사는 " 값없이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 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 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서 한 해를 살아가자"며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시 간을 아끼며, 육체의 소욕이 아 닌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발하자"고 김동욱 기자

월드쉐어 USA "올해 사순절 금식은 나눔 금식으로 생명 살려요"

아이티. 수리남 극빈아동 및 고아 돕기 캠페인 전개

국제 구호 기관인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가 사순 절을 맞아 "사순절 금식을 나눔 의 금식으로!"라는 캠페인을 진 행하다.

사순절 나눔 금식 캠페인은 사 순절 기간 금식하는 한 끼 식사 비용을 헌금해 영혼을 살리는 빵 나누기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미 로 월드쉐어 USA가 매년 실시 하는 캠페인이다.

사순절 캠페인은 교회와 개인 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순절 기 간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금식한 비용(3달러 x 40일, 120 달러)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 게 된다. 이번에 모금되는 금액 은 빈민국인 아이티와 수리남 의 아동들과 가정, 그리고 LA지 역 노숙자들의 식사 제공과 복 숙자들을 섬길 수 있어서 대단 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음 선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 사는 "사순절이 되면 교회와 성 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은혜와 경건의 깊이 를 더하고, 개인의 금식과 더불 어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의 미가 담겨있어 벌써부터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아이티의 아동들과 수리남의 고아들을 섬기는 기회 가 되리라 믿는다"고 참여를 호 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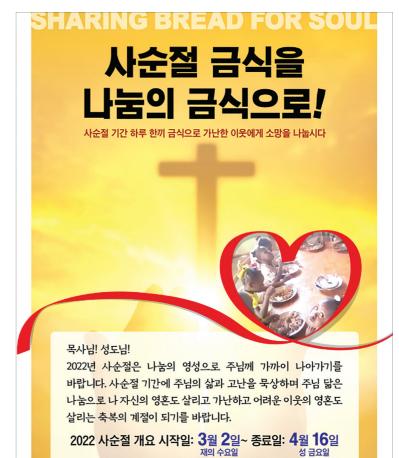
강 목사는 이어 "지난해 사순 절 나눔의 금식 캠페인에 여러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다. 이를 통해 아이티 아동 들을 복음과 빵으로 섬기고 노

히 감사했다"며 "올해도 아이티 와 수리남 어린이들 400여명에 게 복음과 빵 그리고 희망을 전 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기도한 다"고 덧붙였다.

후원비는 부활절 잔치에서 수 리남의 마이클 목사와 과 아이 티의 다니엘 목사를 통해 전달 될 예정이다.

수리남의 군종 목사이자 루터 교회를 목회하는 마이클 목사는 고아원 사역에 특별한 관심이 있 어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에 서 다수의 고아원들을 돌보고 있 다. 아이티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교회를 담임하는 다니엘 목사는 낙후된 지역에서 신실하게 아동 을 돌보는 헌신된 목회자다.

사순절 나눔 금식 캠페인 참 여와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578-7933, 카카오톡 ID : Chapkang 1, 이메일 chap1207@hot-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옆의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World 우크라이나(Ukraine)를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를 받고 몇 일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과 기도 끝에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키므치 (Vasily Khimich)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하는 오랜 친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종 목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키므치 소령이 우크라이나 책임장교였습니다. 당시 제가 한국군종목사로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당시 저(강태광 군종목사)와

키므치 소령(Vasily Khimich)은 국제기독군인회 (AMCF: Association of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활동을 통해 동역해 친구였습니다.

현재 전역후. 키예프에서 군종 목사를 후원하고 전사자 유가족들을 섬기는 키므치가 며칠 전에 전쟁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편지로 가슴앓이하다가 우크라이를 돕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키므치는 전쟁 중인 키예프에서 민간인을 도우며 현역군종목사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시민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세요! 그가 보낸 사진 몇장을 첨부합니다.

- 여러분의 심부름꾼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올림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44

"2022 사역자 컨퍼런스가 휴스턴에서 열리다(2)"

이 시대는 영적 혼돈의 시대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의 전후로 시 대의 흐름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 는 각계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 다. 교회도 달라질 것이다. 이미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은 4만 3천 교회에서 2년 사이 1 만 5천 개 교회가 사라졌다. 미국 도약 3천 500 교회에서 1천 3백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지난 2000년 한국 교계는 '2030 선교 비전'을 세웠다. 당 시 한국에서의 파송 선교사 수 가 2만 8천 명을 기록할 때이다. 그때의 선교사 파송 속도라면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 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교 회들은 가졌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는 더욱 거세어졌다. 항구 에 있는 배는 큰 파도를 만나지 않지만 출항하면 그때부터 바 람과 파도와 싸워야 하듯 선교 부흥을 향한 비전을 세우고 앞 으로 전진하는 한국 교계에도 저항이 닥쳐왔다.

첫번째가 2007년 샘물교회 아 프가니스탄 억류 및 순교 사건 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교계의 이중적 민낯을 보 았다. 선교를 부르짖던 교계가 선교를 나가 순교자를 배출한 샘물교회를 향해 일제히 비난과 함께 손가락질하였다. 그 후부 터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의 수 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국교 회는 이슬람권의 선교에 소극적 으로 되면서 선교 비전을 잃어 갔다. 그러나 교계와 한국사회 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는 이슬람 선교의 열정을 더했고, 그 후로도 선교 발전에 기여했다. 그 당시부터 같은 이슬람권 선교를 담당하는 인터콥 선교회도 위험한 선교지 역을 굳이 택하여 간다고 조롱 을 받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교 회가 하나도 없는 곳을 선교팀 이 찾아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가? 하며 공격하였다.

권 형제들을 찾아가 참 복음과 눈물만 흐른다. (계속)



이상훈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선교 열정으로 헌신하는 이들은 가 혹한 비난과 오해 앞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역자 컨퍼런스에서 놀 라운 선교 보고를 들었다. 지난 1년간 다민족 비전 스쿨 선교팀 은 2030년 이내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선교 비전을 전하 고 모든 나라에서 교회 안에 '비 전스쿨'을 세우는 꿈을 가졌다. 우리가 알듯이 지난 2021년은 팬더믹으로 세계의 문들이 역 사상 유례없는 폐쇄조치의 기 간이었다. 각 나라의 비자 받기 도 힘든 상황에서 아프리카 우 간다, 케냐 등을 중심으로 남미 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를 중심으로 이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의 때임을 교회 들에게 전하였다. 그 결과 아프 리카와 남미의 나라들에게 1년 간각2천여명씩의비전스쿨수 료자, 그리고 수백 명의 단기선 교 파송, 장기선교 헌신자들이 속속 배출되었다. 현재 94개국 에서 비전스쿨이 열리고 있다.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 이 세 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 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을 무력 화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는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전쟁에 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 리할 것이다. 그 승리자의 함성 을 우리는 듣는다. 어떻게? 이 은혜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미 우리보다 앞서 악한 사탄의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 세상은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 왜 너희는 타종교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기 기독교를 전파하는가? 하며 비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난했고, 다수의 교회는 왜 너희 인 성경이 세계 복음화, 땅끝까 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 지 선교를 수없이 말씀하고 계 신데, 어찌하여 교회는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 을 코로나 팬더믹을 핑계 대며 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이슬람 불순종하고 있는지... 기슴 아픈

■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③ "예수님의 출신 지역 갈릴리 연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 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렀 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 현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생애 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갈릴 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공생애 활동 무대였습니다. 아울러 갈릴 리는 12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 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행적이 갈릴리 에 있었습니다. 33개의 예수님 께서 행하신 기적(표적) 중에 25 개가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톤(Easton) 성경 사전에 의 하면 예수님의 32개의 비유 중 에 19개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을 베 푼 가나도 갈릴리에 있고, 예수 님의 명설교인 산상보훈이 행해 진 곳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던 법 정에서 베드로는 신분이 노출됩 니다. 저들이 베드로에게 "당신 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마26:69) 혹은 "당신 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막15:70)라고 말합니 다. 마태도 마가도 베드로를 향 한 사람들의 질책을 전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맹세하 고 부인하자 "...곁에 있던 사람 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며 베 드로를 질책합니다. 아마 베드 로의 갈릴리 사투리가 베드로를 노출시킨 것 같습니다.

19세기 전후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갈 릴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 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진 갈릴리를 살핌으로 예수님 삶의 실제를 알아보려는 노력이었습 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들이 신약 신학계 에서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중 요한 교통의 요지 이면서 아름 다운 경치와 기름진 옥토를 갖



강태광목사 월드쉐어 USA

니다. 로마시대에는 헤롯 안디바 가 건설한 디베랴가 갈릴리 지 역의 수도이며 상업 중심지였습 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 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자 주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안디 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설공사에 몰두 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디베랴입니다. 안디바 는 갈릴리 지역 수도였던 파네 이온을 확장하여 로마 황제 티 베리우스에게 헌정하려고 디베 라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포함하여 길이 약 96km, 폭이 약 48km입니다. 이곳은 높은 언 덕들과 매우 비옥한 평지를 포 함하는 여러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 면 북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리고 남부 갈릴리를 통 칭합니다. 이 지역 내에는 가데 스(도피성), 고라신, 벧산, 므깃 도, 나사렛 가버나움 등의 도시 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성경에 76회 언급되 고 있습니다. 구약에 6회, 사도행 전에 6회를 제외하면 64회가 복 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의 갈릴리는 사도행전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 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 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회 당들을 방문하면서 공생애를 시 작했습니다. 공생애 대부분이 갈 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갈릴리가 구약에서 처음 등장 고 있어서 인구가 매우 많았습 하는 것은 여호수아 20장 7절과 애의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21장32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는 갈릴리가 도피성 중에 하나 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상 9장 에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 조한 두로(Tyre)왕 히람(Hiram) 에게 솔로몬 왕이 갈릴리 지역 20개 도성을 하사합니다. 게다 가 왕하 15장 29절에 갈릴리를 비롯한 여러 도성이 앗수르 왕 에게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 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 이라고 예언합니다(사9:1).예수 님보다 700년이 앞섰던 이사야 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마태가 다시 인용하면서 예수님 사역과 연결합니다. 이 이방인이 거주하 는 역사를 가졌던 갈릴리가 예 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화 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앗 수르의 침략 후에 한동안 이방 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 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대인 들의 새로운 정착지가 되면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프레데릭 브룬너는 "유대땅에서 이방문화가 가장 성행했던 땅이다"라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은 선호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물과 비옥한 토지로 유대 땅에 서 유명한 곡창지대였고 많은 농사들이 이뤄졌습니다. 그래 서 예수님은 자주 농부의 비유 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로 먼저 가실 것을 알려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며 남기신 말씀도 "갈릴리 사람 들아!"로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 람들에게 남긴 유언이 재림의 약 속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

기독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고문변호사 : 정찬용 **발 행 인** : 이인규 지 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213) 739 - 0403 / E-mail: chdailyla@gmail.com 주소: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setminus$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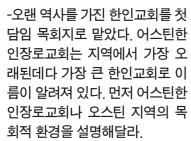
5

[기독일보 텍사스지사 창간 인터뷰 5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김준섭 목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산책' 에 첫 담임 목회 비전을 담아"

미주 기독일보는 텍사스 지사 창립을 맞아 휴스턴, 오스틴, 달 라스 등 텍사스 지역 주요 한인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순서로 어스틴한인 장로교회 담임인 김준섭 목사와 의 인터뷰를 싣는다. 1973년 설 립된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50 여 년의 역사 동안 오스틴 지역 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로 자리매 김해 왔다. 지난해 12월21일 부 임해 목회 1년 차를 맞고 있는 김 목사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 고 총신대 신대원을 거쳐 남아공 프리토리아 대학교에서 신학석 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김 목 사는 '예수 산책'이라는 분명한 목회철학을 갖고, 말씀훈련을 통 한 전교인 제자화 및 선교적 교 회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년 된 전통있는 교회다. 담임으 로 부임한 이후 성도들을 만났 을 때 장로님들부터 평신도까지 기본적으로 신앙이 탄탄한 것을 느꼈다. 교회의 역사도 오래됐고 또 오스틴에서는 교세가 있는 교 회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의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된 다. 잠재력이 큰 교회라는 생각 이 들었다.

또 오스틴 지역은 꾸준히 한 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한 인목회의 필요성과 그 중요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곳이다. 또 한인들의 직종들을 보면 자영업 보다는 전문직 직장인들이 많고 특히 아이티 직종이 다른 지역 에 비해 특히 많은 편이다. 타주 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계속 한 인들이 오고 있는데 EM권 한인 2세들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 직 인사를 못 드린 성도들도 계 이 더 부족한 것을 느꼈다. 공부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김준섭 담임 목사 ⓒ기독일보

한 지역이다.

-팬데믹 중에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목회 시작부터 어려움은 없었나.

어스틴한인장로교회는 연령 대로 볼 때 어르신도 많은 교회 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짠했다. 부임하자마자 문고리 심방을 했 다. 평생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했는데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얼 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신 상황인 지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 찾아 뵈었다.

너무 반가워하셨고 어떤 분들 은 울기도 하셨다. 팬데믹이 지 나가면 이런 부모님 같은 분들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은퇴를 하셨어도 여전히 활동적 인 분들이 계시니 시니어 사역 을 잘 열어드린다면 좋은 열매 들이 맺힐 것이라고 본다.

청빙 이후 모든 성도들에게 인 사를 드려야 하는데 대면으로 100%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아

고 있다.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 시다. 그 점이 성도들에게 죄송 하다. 그 동안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로 인사는 드 려왔지만 전체가 다 모인 가운 데 뵙지는 못했다. 다른 목회적 인 어려움은 팬데믹 가운데 다 른 교회들도 모두 겪고 있는 부 분일 것이다. 다만 목회 1년 차 인 저를 위해 교회의 중직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협력해주고 계 신다. 그 부분이 정말 감사하다.

> 저는 청빙 과정에서 진솔하 게 제 말씀을 드렸다. 제 자신도 100점 목회를 하겠다고 장담할 수 없고 분명히 실수도 나올텐 데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솔직하 게 부족함을 인정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래서 서로 너무 완벽 하려고 부담을 갖거나 하지 말 자고 말씀을 드렸다. 저는 리더 십은 완성된 상태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을 해나간다고 생각한다. 와싱톤중 앙장로교회에서 5년3개월간 부 목사로 섬긴 것이 큰 도움이 됐 고 저 자신도 그 사이에 많이 성 장한 것 같다. 신학공부 또한 하 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면서 더 겸손해졌다.

-전통있는 한인교회를 첫 담임 목 회지로 맡았는데 지난 1년간 어 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 고 있는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 로의 목회철학과 계획이 있다. 아마 지난 부목사 시절 하나님 께서 철들게 하신 듯하다. 원래 는 앞으로만 직진하던 스타일이 었는데 이제는 주변도 좀 볼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여유를 그 곳에 있는 동안 배우게 됐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어스틴한 인장로교회를 연결해 주실 때 첫 담임목회에 대한 부담이 컸 다. 하지만 목회 비전을 생각했 을 때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서 줄 곳 해 왔던 이 산책이 제 목 회비전과 연결된다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예수 산책' 이란 것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 은 아니고 다만 빠르게 변화되 는 환경 속에 너무 바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시대니까 교회 에서는 한 번쯤 느릿느릿, 산책 하는 듯이 여유를 갖고 주변과 뒤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조하고 싶다.

서 나온 것이다.

- '예수 산책' 비전을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 산책'에는 큰 세 가지 비 전을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말씀 공동체, 두 번째가 제자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이 미셔널 공동체 에 대한 것이다. 이 시대에 다양 한 우리 삶의 원천들이 있겠지 만 역시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으로 돌아가는 목회를 하자고 생각했다. 말씀으로 인해 한 사 람 한 사람이 제자로 바뀔 것이 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교로 이 어질 것이라는 지혜를 하나님께 서 조금씩 주셨다.

이 '산책'의 여러 의미를 생각 해 봤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살 아있는 책'이시라는 의미의 '산 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말씀공 동체랑 연결된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길 걸으면서 대화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많은 것을 배 웠다. '산 책'이신 예수님과 함께 말 그대로 함께 산책하며 예수 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다. 우 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써 예수 님이 보여주신 '삶의 책'이 먼저 되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렇 게 '살아가는 책'으로서의 미셔 널 공동체를 이뤄가고 '지역과 세계열방을 품는 선교',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선교', '사람을 세우는 선교'를 해나가 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어떤 길을 걷는가, 또 누 구와 길을 걷는가에 따라 인생 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를 위해 열어 주신 길이 있고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닦아 놓으신 길이고, 구원의 기 쁨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길 이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하신 다는 것을 이 '예수 산책'을 통해 김대원 기자





지하숙소복원과 북념동족(어린이)들에게 사건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 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I www.gideonbrothers.org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한교총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한 대통령 후보 선택해야"

"반드시 투표하되. 각자 선택 존중"요청도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 영모 목사)이 20대 대통령 선거 를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하자고 독 려했다.

한교총은 15일 "그동안 각 정 당 후보들이 보여준 모습은 마 치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 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 라 할 수 있느냐' 물으신 예수님 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며 "과 연 누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가 를 분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 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서 대통령 직접선거는 대한민

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성 과"라며 "모든 교인이 투표에 적 극 참여하여 국민으로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것을 권고한다"

한교총은 먼저 기독교적 가치 관에 부합한 정부가 구성되도 록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 총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 터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과 임 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의 건국 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하 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전과 복음 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가 되기를 기도해 왔다. 기독교적 가치관은 어떤 이념보다도 완전한 삶의 지 표"라며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인간의 존엄과 공정, 상호 이해 와 협력,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밝 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시행된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pixabay

둘째로 5년 후를 바라보는 지 혜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을 요 청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 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 고, 5년 후 국민의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며, 다음 세대

의 꿈과 역량을 극대화할 지도 자가 필요하다. 임기를 마칠 때 ' 국민을 통합한 대통령', '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대통령',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조국을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아쉬움의

감동과 감사의 박수를 받는 주 인공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 다.

마지막으로 교인 각자의 선택 을 서로 존중할 것을 요청하며 " 지역교회나 단체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의 정치참 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교 인은 참정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각자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 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나 기관, 연합 단체의 직접적인 정치행위는 하 나님 나라의 원리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 과적으로 교회와 복음의 순전성 을 해치게 된다. 모든 교회의 지 도자는 교인 각자의 신앙과 양 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의 권 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밝

송경호 기자

한국 기하성 소속, 부교역자들이 담임목사 부부 비리 폭로



지난해 A집사 사기 사건 관련 보도. ⓒSBS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에 연 루된 한 집사 문제로 내홍을 겪 고 있는 기하성 소속 순복음OO 자들에 대한 횡포 △A 집사 허위 교회에서, 담임목사 부부에 대 출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 부교역자들의 폭로도 터져나

여행과 쇼핑에서 선물 요구 △문 서선교센터 갑질 △비서실 교역

이들은 "최00 목사 부임 후 교회 전·현직 교역자들인 폭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 자님들께 호소드립니다'라는 60 능한 상태의 위험에 처할 것이 언 \triangle 금품 요구 \triangle 골프 접대 \triangle 로 개입해 잘못을 바로잡고 \triangle 를 파손하고 용역을 동원해 장 는 사죄 말씀만 올리겠다"고 밝

회가 정상화되도록 힘써 달라" 고 호소했다.

이 진행 중이고 자격이 정지됐 진행 중이다. 음에도, 목회자로서는 할 수 없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루 말 는 불법적 일들을 교역자들에게 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교 해 교회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지시하거나, 불법 소집명령 등을 역자들이 제기한 저와 제 가족들 커져 카드를 변경했다"며 "교단 로자들은 '기하성 교단의 목회 이대로 가면 교회는 회복 불가 여전히 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 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 에서 파송한 치리 목사는 파송 인사명령을 내려 장로들이 분열 이고,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 절차에 문제가 있어 적법하지 여쪽의 문건에서 담임목사에 대 기에,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 해 싸움이 일어나도록 조장하고 다"며 "그들의 글 중 맞는 부분 않고, 인사권 행사도 원천무효" 해 △교역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 될 수 있도록 교단이 적극적으 있다. 교회 총무국 출입문 장치 도 틀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라고 강조했다.

"갑질과 금품수수 의혹, 교회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기간 점거, 직원들 출근과 업무, 헌금수전, 예산집행 등이 마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예산 집 행이 불가능해 모든 업무가 마 비됐다. 총무국 점거로 수전실 이 폐쇄돼 헌금수전, 헌금 계수 가 불가능해 소중한 헌금이 계 수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면 서 "최 목사는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사용하는 통장(체크카 드)과 인감을 분실 신고한 후 재 발급을 시도하는 등 상상 못할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

최 목사는 현재 A 집사의 사 기 방조, B 장로에게 이영훈 목 사 고발 사주, 부교역자 금품수 수 의혹 등으로 기하성 총회 특 특히 "최00 목사는 교단 재판 별재판위원회에 회부돼 재판이

그러면서 그는 "저희 세대는 제자로서 원로목사님을 성심껏 모셨기에 선부 존중의 관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교역자들 과 함께한 것이지만, 지금은 크 게 후회하고 있다"며 "시대가 바 뀌고 관점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 끼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생 각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총무국 경비 시행과 교회 카드 교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 사 비용지출 등 총무국 불법사용 을 대비한 것이었지, 돈을 인출 해 법인을 설립하고 비전센터를 팔려 했다는 항간의 참소는 사실 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법적으 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담당 장로에 대한 진정이 올라왔는데, 그 내 논란이 커지자, 최 목사는 지 용이 형사문제가 될 만큼 심각

송경호 기자

기독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u>프로지 골드</u>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인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인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 434, 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김성식 담임목사

써니김 담임목사

엘리야 김 담임목사

박은성 담임목사

강지원 담임목사

신승훈 담임목사

곽부환 담임목시

11/호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토요일) 오전 6:00

원하는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예배

금요영성예바

아침말씀예배

T. (323) 833-909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개호

오전 11:00

오후 7:00

월~토

씨티교호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오후 2:00

나눔과 섬김의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5

EM@IH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古*가주새소망교호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고교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시명을 위하여 시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Ò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Ò Т

중고등부 오전11:00

T.(213)321-4433

영광교호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호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E-mail: chdailyla@gmail.com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하모 기 호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수요중보기도모임(수)오후 7:3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랑의 교호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익예배 오흐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어린이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오전 9:0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귿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서교교호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성하미교호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대학청년부 오후 2:0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u>O</u>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주님의시 랑교호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미/호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화~토)

샘교호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오후 7:30 (화)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오후 7:00 (금) 네마지막주) 오후 8:00 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

야하이규호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경진 담임목사 오전 10:15, 오후 12:40 주일 2부 오전 12:3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한어청년 오후 12: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유년부 오전 10:30

10 교호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미 백인 복음주의 과반수. 불법 이민자 시민권 '반대'



2021년 10월 멕시코 남부에서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으려 이동하고 있다. ⓒNBC뉴스 보도화면 캡처

미국 공공 종교연구소(PRRI)가 최 근 발표한 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 개 신교인이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에 가장 반대하는 종교 집단으로 나 타났다.

3일 발표된 '미국 거주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지지'에 관한 조사는 지난 해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 로 작성됐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지하고(62%)고 이 민자가 미국 사회를 강화한다고 믿었 지만(56%) 이민을 중대한 문제로 보 는 응답자는 44%에 불과했다.

그 결과,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47%)을 제외한 종교 단체의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길 이 열린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종교 집단 중에서 흑인 개신교인 (75%)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히스패닉 가톨릭(70%), 무교 미국인 (69%), 기타 기독교인(65%), 백인 주 류 개신교인(59%), 비기독교인(55%), 백인 가톨릭 교인(54%) 순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 하는' 백인 주류 개신교인(66%)과 백 인 가톨릭 교인(57%)의 경우, 과반수 가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 지했다.

이민에 관한 주제는 복음주의자 (53%)를 비롯한 백인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가톨릭 교인(57%)과 개신교인 (54%)은 이민을 중요한 문제라고 여

겼지만, 무교 미국인은 3분의 1 이하 (32%)가 이민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 했다.

설문 조사는 이민을 중대한 문제로 보는 응답자들에게 '특정 요건을 충족 한 불법 이민자의 시민권 허용'과 '미 성년기에 밀입국한 이민자에게 영주 권 취득을 허용' 할지 여부를 물었다.

이민을 중요한 문제로 평가한 그룹 은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민주당, 공 화당 및 무소속 등 총 4곳이었다.

이 중 백인 복음주의자의 34%는 불법 이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 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했 고, 10명 중 4명(41%)은 '불법체류 청 소년 추방 유예제도(DACA)'에 대해 찬성했다.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불법 이민 자의 시민권 취득을 지지하는 비율은 흑인 개신교인(70→75%), 비종교인 (64→69%), 기타 기독교인(63→65%) 사이에서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히스패닉 가톨릭 교인(74→70%), 백인 주류 개신교인 (61→59%), 비기독교인(68→58%), 백인 복음주의자(56→47%)로 지지율 은 줄었다.

이민자의 증가가 미국을 강화할 것 이라는 응답 또한 감소했다. 백인 복 음주의자의 경우 2011년 38%에서 2021년 35%로 줄었고, 같은 기간 백 인 주류 개신교인(48→46%), 백인 가 톨릭 교인(56→46%)도 감소세를 보 였다.

김유진 기자

美 버지니아주, 학부모에 '성적 콘텐츠' 고지 의무화 법안 통과



© Unsplash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은 학교 측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학부모 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버니지아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 SB 656은 주 교육부에 공립학교를 위한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라는 문 구에 대한 정의는 이미 주법에 기록 된 대로 사용하며, 부모가 교육 내용 에 반대할 경우 자녀에게 '비명시적 교육 자료'와 '관련 학업 활동'이 제 공된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서 20대 18로 통과했으며, 현재 주 하원으로 넘어갔 다. 2명의 민주당원인 린우드 루이스 상원의원과 몬티 메이슨 상원의원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 의 통과가 보장됐다. 글렌 영킨 주지

사 역시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법안이 승인되면 교육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새 법을 시행하 고, 교육부는 2022년 7월 31일까지 정 책을 개발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이자 법안 후원자인 빌 데스테프 상원의원은 "나의 목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교육) 도 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도 금지하거나 태우려는 게 아니다. 부모 가 자녀에게 '이것은 보아도 괜찮다' 고 말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은 공립 초등학교 및 중 등학교에서 도서의 검열을 요구하거 나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선 안 된다 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 제정은 2020년 공화당 글렌 영킨과 민주당 출신 테리 맥콜리프가 나선 주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였다.

강혜진 기자

"매주 예배 드리는 성도. 사생활 만족도 더 높아"

갤럽 새로운 조사 결과 발표

미국에서 종교와 정신적 건강 사이 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밝 혀낸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매주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그렇지 않 은 성도보다 사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이 1월 3일 부터 16일까지 성인 811명을 대상으 로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 주 예배를 드리는 미국인의 67%가 사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주 또는 매달 예배에 참석하는 미국 인들 중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의 48%가 사생 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갤럽에 따르면, 매주 교회에 출석하 는 이들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 는 이들(61%)보다 개인 삶에 매우 만 족한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프랭크 뉴포트는 "종교성과 건강 사이의 상관 관계가 다른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2012년 갤럽의 주요 보고서에 따르 면, 매우 종교적인 미국인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매일 부정 적인 감정이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뉴포트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웰빙, 행복, 정신적(어떤 경우 육체적) 건강에 대한 다양한 척도 사이의 상 관 관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매우 입 증된 발견이 있다"며 "상관 관계 이 면에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연구자들은 종교의 고차원적

다"고 밝혔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서한

을 보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스트레

이더는 피임약 처방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어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기 전까지 텍사스 켈러에 소재

한 CVS 약국 미닛클리닉에서 전담간

크리스틴 프랫 퍼스트리버티 변호

사는 서한에서 "직장에 첫 출근하기

전, 스트레이더는 피임약을 처방하지

않기 위해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다.

그녀를 고용하면서 CVS는 그녀의 종

교적 신념을 수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어 "향후 6.5년 동안 CVS는 문제

없이 스트레이더 간호사의 의견을 수

용했다. 드문 경우, 피임 처방 요청이

있을 때, 스트레이더는 다른 전담간호 사나 2마일 떨어진 다른 CVS 미닛클

리닉 매장을 소개했다"라고 주장했다.

의 근무 경험은 2021년 7월 26일 극적

으로 바뀌었다. 이날은 CVS 측이 "모 든 간호사는 피임을 포함한 임신 예방

과 관련된 필수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

서한에 따르면 매니저는 "2021년 9

월 23일, 스트레이더 간호사가 피임에

대한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CVS는

2021년 10월 31일에 해고할 것"이라

다"고 발표한 날이라고 한다.

서한에 따르면 스트레이더 간호사

호사로 6.5년 동안 일했다.

라고 밝혔다.

美 CVS, 피임약 처방 거부한

기독교인 간호사 해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펠로우 십 교회

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차분하고 긍정 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고 언급한다. 다른 종교인들과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긴밀한 종교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삶 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수 있다는

뉴포트는 "종교에 대한 믿음은 삶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신앙과 목적 의 식을 줄 수 있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걱 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종교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종교 의식 의 구조와 규칙성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감 사를 표현하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은 많은 종교의 핵심 구정 요소"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선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최 혁 담임목사

아이 교호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오전 5:30(월-금) 6:00(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EM 2부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현선교교호



9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그 오차야에베 오흐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은혜로교호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김경환**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FM선이에배 우호 1:00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EM 예배 오전 8:00 오전 9:45 **김우준** 담임목사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Ŏ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로스교호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청년예배 오후 1:3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수요예배 오후 7:30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얼바인온누리교호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혜하인교호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기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안창훈 담임목사

림학춘 담임목사

박신웅 담당목사

한기홍 담임목사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예수민고 변화되어 세상을 충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일 IN 호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교후 5:9)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델교호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레지카운티하이교호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117 豆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지독일보 🐯

◎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chdailyla@gmail.com

미국의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CVS 가 피임약 제조에 대한 송교적 면제 **GV3** pharmacy 1부예배 오전 8:00 주 고드브에배 오저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해 차별 당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cvs.com 다"고 주장하며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주 벧엘 교회 에 항의를 제기했다.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 고 말했다. 매니저는 스트레이더 간호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면, 미국의 약국체인인 CVS는 이에 사에게 신념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대한 대응으로 "간호사는 해당 직무 압력을 가했다. 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된 스트레이더 간호사는 CVS에 종교 주일예배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적 편의를 요청하는 세 통의 편지를 중보기도 오전 9:00(목)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보냈지만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기독교 법률단체인 퍼스트리버티인 2021년 10월 31일 그녀를 해고했다고 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8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일 간호사 로빈 스트레이더를 대신해 서한은 밝혔다.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성인영어예배 2전 9:15, 2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남성수 담임목사

박훈 담임목사

4부예배 오후 2:00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해고했다"라고 서한은 주장했다. 민권법 제7호는 "고용주가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국 가를 이유로 급여, 조건, 고용 특권과 관련해 개인을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명시했다.

프랫 변호사에 따르면 스트레이더

간호사가 해고된 후 CVS는 "그녀가

종교적 편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녀를 수용하면 CVS가 과도한 어려

변호사는 CVS가 종교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

호(Title VII)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종교적 편의 제공 요청을 전향적으로

배제하고, 그녀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

도록 강요하고 이유 없이 6년간 제공

했던 종교적 편의를 중단하고, 계속되

는 그녀의 요청을 고려하기를 거부하

는 등 종교를 근거로 스트레이더를 차

별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녀를

"CVS는 피임 처방과 관련된 모든

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드앤젤리스 CVS 기업 커뮤 니케이션 담당 이사는 "임신 예방, 안 전한 성관계를 포함한 성건강 문제에 관한 환자 교육과 치료는 우리 회사와 간호사의 필수 직무"라며 "이러한 필 수 기능에 대한 면제는 허용할 수 없 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기자

우크라이나 기독교계 "우리의 사명 변함 없어...두려워하지 말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지 기독교 사역자들이 "우리의 사명은 변함이 없다. 두려워하 지 말라"며 전국의 성도들을 독 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78%가 우크라이나정교회, 10%가 로마 가톨릭. 2%가 복음주의 기독교 인이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 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에 위치한 키예프신학교(Kyiv Theological Seminary)는 페이 스북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성 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적었다.

키예프신학교는 폭탄 테러 우 려로 지하철에 대피해 있는 키 예프 시민들을 위해 식료품을 포장하고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 도록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 하고 있다.

키예프신학교는 "적시에 대 피소에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을 모으자. 두려움이 우리를 지 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당황하지 말라"고 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두 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 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 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 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 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덧 붙였다.

키예프신학교는 마지막으로 " 우크라이나를 위해,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해, '원수'(the enemy)가 범죄를 멈추고 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교회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도 를 요청했다.

우 크 라 이 나 침 례 교 연 합 (Ukrainian Baptist Union) 발레 리 안토뉴크 회장은 영상 메시 지에서 시편 23편을 인용해 "전 쟁 시 기도는 우리의 무기"라며 전 세계에 기도를 요청했다.

남부 해안 도시 오데사에 위치 한 기독교 방송국 '뉴 라이프 크 리스천 라디오'(New Life Christian Radio)는 해당 지역에 러시



RUSSIA ATTACKS UKRAINE: BLASTS HEARD IN MULTIPLE CITIES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동부 지역 하르코프광장에서 기도하고 있다. ⓒCNN 보도화면 캡쳐

아군이 주둔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방송국에 직원들이 남아 있 다고 전했다.

이 방송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최소한의 직원들이 군대에 의 해 저지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뉴라이프크리스천라디오

는 러시아와 우크나리아 시민 모두가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 우리 구세주에 대해 알아 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 도와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방 송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역과 러시아에 기독교 방송을 송출하 며, FM 주파수와 위성 및 인터넷 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 도어는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 들이 구소련 하에서 그들이 겪 었던 박해를 잊지 않고 계속 복 음을 나누기로 결심했다"고 전 김유진 기자

中 가정교회 목사,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 선고 받아

중국 후베이성 법원은 개신교 교회를 규제하는 국가통제기관 가입을 거부한 가정교회 여성 목회자를 복음전파 사기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UCA뉴스를 인용해 어저우 어 청 구 인민법원이 최근 어저우 시 에장차오 교회의 하오 즈웨 이 목사(51)에게 징역 8년을 선 고했다고 보도했다.

즈웨이 목사는 개신교 삼자애 국운동위원회와 기독교협의회 의 승인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변호인 스웨이장이 밝혔다.

스웨이장 변호사는 "2019년 7 월에 체포된 하오 목사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중국 내 최초의 가정교회 목사"라며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고 박해감시단체 '처치 인체인'(Church in Chains)이 전

이 단체는 "하오 목사의 교회 덧붙였다. 건물은 지난 2019년 8월 철거되 었으며 지속적인 박해에 직면해



중국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과거 기도회에 참석했던 모습.(기사와 직 접 관련 없음) ⓒ차이나에이드 제공

있다"라며 "목사가 체포된 후 당 국은 같은 혐의로 구이양 런하 이개혁교회의 장춘레이 장로와 회 우지아나를 포함해 여러 가 정교회 목사들을 체포했다"고

중국 공산당은 2018년 발 효된 새로운 종교행위에 관한

규제법(Regulation on Religious Affairs)을 사용해 가정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 하오밍 장로, 이른비칭카오디교 한다고 청두 이른비언약교회 의 리잉창 장로가 지난해 11월 밝혔다.

> 박해 방법에는 '중국화'가 포 함되며 십자가와 교회 건물을 철거하거나 교회 헌금을 금지

하는 등 기독교를 중국 문화, 종 교, 정치 이념에 맞추려는 시도 가 포함된다.

리 장로는 "기타 혐의에는 불법 사업 운영', '국가 권력 전 복 선동', '싸움선동 및 소동'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난은 충 성스러운 설교자의 머리에 박힌 가시이며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 한 하나님의 면류관"이라고 덧 붙였다.

하오 목사의 아들인 중학생 모 세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 다고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 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가

ICC는 "하오 목사의 남편은 몇 년 전 사망하고 큰아들이 2020 년 대학을 입학해 더 이상 동생 들을 돌볼 수 없게 됐다. 모세는 이번 학기 자퇴하고 방에 갇혀 지냈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 를 거부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 는다"고 전했다.

하오 목사는 감옥에서 건강 이 악화되고 있으며 상당한 체 중 감량을 겪었다고 ICC는 전했 다. 이 단체는 "(하오 목사가) 2 년 넘게 구금된 후 급성 췌장염 에 4번이나 걸려 응급실로 실려 갔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라고 밝혔다.

하오 목사는 무죄로 석방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고 ICC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사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_A office/Showroom 오픈기념 세일

단독주택에 ADU Second Unit 건축

Water Damage 보수공사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팀, Stucco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2년 건축의 달이라 지금 상당해 보세요 >>





견적상담

LA (213)500-8000 3400 W Olympic Blvd., #204, L.A, CA 90019 (구, 로랜드 빌딩) OC (714)294-4336 8251 Roland St., #E, Buena Park, CA 90621



회



어리석은 부자의 유훈(遺訓)(2)

마태복음 19:16-22



마태복음 7:21-23에 "나더러 주여 주 여 하는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 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 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 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 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 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속셈 을 해가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며,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 값을 값없이 대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 람을 구속하여 하늘나라까지 값없이 주 려고 했었는데 결국 육신의 세상허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인생을 속셈하며 어 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 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38에 기록되 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으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 것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 지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어여 쁘게 여기시고 기대를 거심으로 누가복 음 6:38과 같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 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속셈하여 주지 말 라고 하십니다.

본문속의 청년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그곳에 가고싶다 는 간절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 명을 모두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정도의 율법주의자였습 니다. 20절에 그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 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시고 "네가 진실 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으면 가서 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너의 재산을 정리해서 예 수 이름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 누어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리하면 하 늘에서 네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축한다고 헌금도 하고 몸으로 헌신도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면 하늘에 쌓아놓은 공적이 그 사람과 영원히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늘소망의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신나는 믿음생활로 성령 이 충만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헌금도 아낌없이 하던 사람이 세월이 지 나는 과정에 믿음이 점점 더 하늘나라로 무르익어 가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으로 빠져들어 가서 재리(財利)의 유혹에 얽매 여 벗어나지 못해서 그만 하나님이 버리 시면 천국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실격자 가 되어 버립니다.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에 은혜 받았을 때 섬겼던 일은 영원히 상관없는 것이 될 수 밖에 없 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24에 "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 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하신 말씀 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입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 니다.

25절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 랐다고 하고 있는데 제자들 역시 예수님 덕분에 부자 될 기대와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가장 진솔한 반응이 아닐 수 없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답하십니다. 하 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깨닫 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하실 때에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나 리를 목적삼는 영적신앙의 소망으로 순 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성령이 하늘나라 까지 데려가 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 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회사를 경영하던 중 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 부도가 났습니다. 잡히면 구속되기 때문 에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냈습 니다. 그곳에서도 가짜이름을 사용하면 서 지냈는데 아침, 저녁으로 집회시간이 되면 참석하라는 종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차림새를 하고 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한 교회에서 버스 두 대가 와서 는 집회를 하면서 남전도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가만히 보니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너무 나 반가운 마음은 들었지만 지금의 처지 가 숨어 지내는 형편이라 선뜻 나서서 아 는 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도 원을 떠날 무렵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얼 굴이나 한 번 더 볼 생각으로 다가가 바 라보다가 도리어 그 친구가 자신을 알아 보고 덮석 안으며"너도 이제 예수님을 믿 게 되었구나. 참 반갑고 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 도원에 숨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숨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진작에 예수님을 믿 었으면 너의 형편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 았을거라고 말을 하자 그는 "예수를 민 으면 부자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묻습 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 그럼. 제대 로 믿기만 하면 엄청 부자가 될 수 있지" 합니다. 그는 이 친구의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친구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진짜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빚도 다 갚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 주실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 을 적 함께 주일학교에 다녔던 때를 생각 하면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며 이제부 터라도 제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 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 장로는 그 사람의 회사를 조사해보고 돈을 빌려주면서 부 도는 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한다는 단서 를 붙였습니다. 그는 기도원을 내려와서 다시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친구 장로 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하며 신앙생활 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전도회 모임이 있던 날, 전도를 나 가기 전, 목사님께서 전도는 우리의 사명 이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과는 전도의 성과라 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 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오늘 꼭 전도 해 오실 거지요?"했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라 묻습니다 "전도를 해 오시라니까 왜 고개 를 저으십니까?"했더니 "제가 전도를 하 면 안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 나님이 복을 막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전 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다 나 누어 가지게 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적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볼려고 전도를 하겠습니까"하더랍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속셈으로 꽉 차있었 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인 친구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십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며 도와 주었는데 어쩌 면 그것이 소용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앙 생활하는 것이 엉터리인데다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무지할 뿐 아니라 믿는 믿음의 목적이 속셈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라 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목자도 걱정하 지만, 성령님이 염려하시고 예수님이 실 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소망 이 없습니다.

이와같이 물질기대로 인한 속셈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성과를 인한 속셈은 하나님의 복 받을 그릇이 됩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부	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년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						
CISTV	토요일 서부오후6시/동부오후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신문 설	교	l	LA 미주 복음방송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 기쁜소리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22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미성대학교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MIDWESTERN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ptsa.edu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장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2006년 취득)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www.itsla.edu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 강준민 칼럼

헌신은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예수 님도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 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 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 라"(요 15:11). 바울도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 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 라"(빌 4:4). 문제는 우리가 기쁨 을 원하지만 기쁨을 억지로 만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하 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일까?" 각 자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스 스로 질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 다.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기 뻐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아주 어릴 적 경험도 좋습니다. 우리 는 기쁨을 기억해 냄으로 기쁨 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기쁨에 대해 깊 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제가 어릴 적 언제 기뻐했 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는 어릴 적에도 추위를 탔습니 다. 그래서 어릴 적 따뜻한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고요 한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에 대한 추억을 우리 안에서 끌어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 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억은 주 로 충격적인 사건, 상처 받은 사 건, 고통스런 사건을 기억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통스런 순간들을 더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행복에 젖 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춤추 고 싶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인생의 무게 때문에 기쁨 의 기억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셀름 그륀은 우리 안에 '기 쁨의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 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기쁨의 기억을 생각해 냄으로 내면에 있는 '기쁨의 샘'을 움직일 수 있 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쁨의 기 억을 제 기억 속에서 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는 제 나름대로 고난과 역경을 많이 통과한 까닭입니다. 하지 만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제 기억을 추적하는 중에 기쁨 의 순간들을 기억해 낼 수 있었 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위대 한 일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은



강준민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하 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 억할 때 우리는 과거의 아름다 운 경험을 오늘 다시 맛볼 수 있 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다양 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원한 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경험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운동을 하 거나 산책할 때 기쁨을 경험합 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몰랐던 것 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기쁨 을 경험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 졌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어

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기쁨 을 경험합니다.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쁨을 경 험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성취 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배 우고 성장할 때 기쁨을 경험합 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다양 한 기쁨 중에, 제가 나누고 싶은 기쁨은 헌신의 기쁨입니다. 헌신 의 기쁨을 깨닫기 위해서는 헌 신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알 아야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뜻을 정한 다는 것입니다(단 1:8). 헌신한 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것입니 다.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 를 향해 전심을 다하고 온몸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 의 헌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런 까닭에 헌신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 신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의 발걸음을 내 딛는 순간, 전에 경 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하면 용맹을 발하 게 됩니다. 연약해 보이는 여인 이 아이를 잉태하고 키우면 용 감한 여인이 됩니다. 자녀를 향 한 사랑과 헌신 때문입니다. 헌 신은 능력을 낳습니다.

헌신의 능력은 비전의 능력입

니다. 비전을 품게 되면 헌신하 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품었을 때 그는 갈 대아 우르를 떠나는 헌신을 했 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낚는 비 전을 품었을 때 배를 버리고 예 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을 했습 니다(마 4:19-20). 사명을 품게 되면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자 기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행 20:24).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 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 님을 사랑한 까닭에 소중한 옥 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 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 시는 헌신을 하셨습니다.

헌신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예 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기 쁨이란 우리가 집착한다고 경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선 한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위로부 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면 에 있는 '기쁨의 샘'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 전도, 제자양육, 선교, 봉사, 자녀 교육, 구제 등 선한 일에 헌신할 때 기 쁨이 찾아옵니다. 헌신은 능력과 기쁨을 낳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 입니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옥이는 책임지고 아낙네들을 모아 기도회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어라.

"광이는 먹물깨나 먹었으니 기도회의 강령을 작성하라."

"나머지는 기도회를 위해 죽 기 살기로 기도하라."

그리고는 나부터 무릎사이로 머 리를 처박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 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 전히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님 아버지께서는 명령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쳐 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 든 다시 무르지 못한다고 명령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중 자기 목숨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 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며 우리가 드리는 충성심대로 판결 하여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 아 버지의 소견에 좋을 대로 처리 하옵소서, 아멘."

내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 료가 내 옆구리를 치며 말했다.

"자네는 왜 자꾸 죽이라고 하는 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 는 분이 아닌가? 사랑의 본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소원하시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 하나님 아버지를 자네의 세 치도 함으로 하는 게 아니야"했다.

안 되는 혀를 놀려 독재자와 같은 살인자로 만들지 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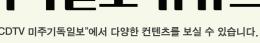
그런데 그의 충고가 왠지 고깝 게 여겨졌다.

'이 종간나 새끼, 기도회를 조직 해야 한다고 나를 책임자로 세울 때는 언제고 죽는다니까 겁나는 모양이군. 이렇게 겁이 많으니 계 집애만 줄줄이 셋이나 낳지.

그런데 우습게도 나 역시 딸만 둘씩이나 낳은 아버지였다. 갑자 기 혼자 우스워서 키득거리니까 그가 영문을 몰라 왜 웃느냐고 묻 는 것이다.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 하자 그는 "하나님의 일은 용감

그런데 그때는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없으면서 번 지르르한 말로 자신의 비겁함을 포장하는 겁쟁이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 고 나서야 하나님의 일은 나 자 신의 용감함이나 굳은 의지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 하 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 죽어 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열심히 아 니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 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다. 당시 나는 그만큼 교만했고 어리 석었다. (계속)

You 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CDTV 미주기독일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 2개월 서비스

타주이사

피닉스 당일 출발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시내이자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해외이사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580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DOT: 1847208 ICC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나의 '깐부' 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피니언 칼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 공했습니다. 벨라루스와 군 사훈련을 한다는 러시아군은 돌연 2022년 2월 24일 국경 을 넘어왔고, 수도 키에프를 함락시키려 합니다. 이미 제 공권을 장악한 러시아는 미 사일과 항공기로 주요 거점 을 타격했으며, 양측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며 교전하 고 있습니다. 개전 3일째가 되는 토요일에도 아직 전쟁 은 진행 중인데, 민병대들이 러시아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서방에서 지원된 재 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정의로운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생존 면에서 몹시 긴박합니다. 이 번 주의 러시아 침공은 2014 년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 거에 이어진, 동부의 친 러시 아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 크 인민공화국의 자치와도 관 련되어 있습니다. 친 러시아 정치지도자 야누코비치 우크 라이나 전 대통령이 민중 시 위로 실각하고, 친 서방파인 현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 하면서 갈등은 구체화 되었 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영향력, 무엇보다 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NATO)의 군사력이 러시아 의 코앞까지 도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는 반 서방파 정치인과 친 러 시아 세력을 배후에서 도와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거하였 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러시 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직 접적 동기는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과 밀접 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직접 참전하지도 않



민종기목사 충현선교교회

고 경제제재만을 강조한다는 것, 더구나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 령의 공언은 러시아의 군사 적인 개입을 불러들이는 입 구를 열어주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거 후, 미국은 셰일 개스를 싸게 생산함으로 배럴당 생 산비를 30불 이하로 낮추는 보복을 했을 때, 러시아는 자 신의 주 수입원인 천연 개스 판매로 전쟁 준비를 할 여력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 부에서는 환경을 빌미로 셰 일 개스를 감산하고 유가가 90불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게 되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을 더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지도자 와 국민의 동기와 의지에 있 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민 동원령을 내리고, 자신 도 나라를 떠나지 않는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나섰습니 다. 자유는 누가 되든지 그것 을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 르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습

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문제 는 소위 군사 동맹, 즉 우리 이 야기로 "깐부"가 없다는 것입 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에도 주는 의미가 깊습니 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있는가? 핵무기도 없고 재래식 무기도 넉넉하지 않다 면, 우리의 깐부인 동맹국 미 국은 우리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깐부이신 하나님이 우 리의 운명에 개입하실 만큼 우 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 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남 의 일이 아닙니다.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조국은 변함없는 동맹이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전에 운동 중에 아는 목사님 께서 저에게 물 한 병을 주시면 서 "안목사님, 이거 비싼 물인데 안목사님이니까 주는거야~~"하 시더군요. 그 물이 바로 '에비앙 (Evian)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 목사님, 이런 귀한 물을 주시다 니, 감격하며 마시겠습니다!"고 했더니 웃으시더군요. 우리가 사 서 마시는 물병은 크게 두 종류 인데, 하나는 정수물이고, 또 하 나는 생수물입니다. 물론 생수 물이 더 좋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에비앙 물은 프랑스에 있는 레만호수 옆 '에비앙(Evian)이라는 마을 에서 퍼 올리는 생수입니다. 에 비앙 회사의 말로는 이 물은 15 년 동안 땅 속에서 걸러진 물이

대지6.060SF

파티오, 뉴페인트 & 카펫

알프스의 눈 녹은 물이 땅 속 으로 스며들어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에비앙에 이르기까지 최 소 1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 니다. 그 시간 동안, 물은 깨끗해 지고, 또한 좋은 생명력을 지니 는 생수가 된다고 합니다.

물 하나가 좋은 물이 되기 위 해서도 15년의 시간이 걸립니 다. 하물며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겠지요.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신앙적으로 매 번 그 자리에 있 는 것 같아요. 더 성장해야 하 는데, 죄송하기만 해요." 하시더 군요. 그 말씀을 듣고, 먼저는, 참 귀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 만 하면 되었다!'는 생각은 참

Airbnb 로 \$18000 월수입

완전 리모델링과 업데이트된집



안성복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준 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입 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는 생

각이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것 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 는 생각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 에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이미 이루었다는 생각을 가 진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 습니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사도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 니다. 그 만남이 사도바울 인생 의 극적인 전환을 이룬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가 '온전한 성 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아라바 광야에서 3년 의 시간을 보냈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며 매일의 삶 속에 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 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 주택 / 상가 매매상담 스페셜리스트, 모든지역 / 리스팅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에이전트 케롤 리 ★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 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 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 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 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 려가노라"(빌립보서 3:12-14)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삶, 생명력 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뒤엣것 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 나 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

생명보험 IRA, Annuity

20 YEAR TERM LIFE INSURANCE \$500,000 \$1,000,000 \$300,000 Male Male Male Age Female Female Female 30yr \$17 \$20 \$25 \$30 \$45 \$54 \$86 40yr \$24 \$30 \$36 \$46 \$67 50yr \$43 \$60 \$68 \$97 \$131 \$188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100,000		\$300,0	000	\$500,000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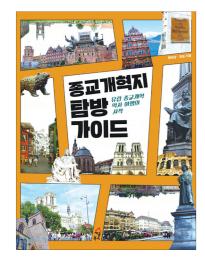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책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유럽 6개국 20개 도시 중심으로 소개

"종교개혁지 탐방,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황희상, 정설 세움북스 | 332쪽

종교개혁지 탐방의 WHY, WHAT, HOW!

> 하나님의 존재와 숨결이 숨쉬는 역사의 현장을 "가서! 경험하라!"

몇년전 '종교개혁지 탐방' 여행 상품이 교계에 유행한 적이 있다. 기존에는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 스라엘, 터키, 레바논 등을 다녀 오는 상품은 많았지만 2017년 종 교개혁 500주년이 되자 눈치 빠 른 여행사들이 관련 상품을 만들 어 판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품 들의 문제는, 갑자기 생긴 수요에 맞추다 보니 콘텐츠가 따라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행 상품 일정 에 막상 중요한 종교개혁지가 빠 지거나, 종교개혁 역사 중 초기에 해당하는 도시만 보다 온다거나 하는 식이다. 종교개혁 관련 지식 을 갖추고 교회사적인 의미를 잘 설명해줄 가이드를 찾기 어려운 점도 있다.

위와 같은 아쉬움을 보완하고 자, 종교개혁지 탐방을 꿈꾸는 이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구 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 〈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가 출 간됐다. 책은 유럽 6개국 20개 도시를 중심으로 탐방할 수 있 는 종교개혁지를 소개했다. 책 의 저자는 황희상(남편) 정설(아 내) 부부. 이들은 전남대 신문방 송학과 동기로, 기독교잡지 편집 장과 기자로 사이좋게 활동했다. 남편은 '특강 종교개혁사' '특강 소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종교개 혁사' 등 종교개혁 관련 책을 출 간한 저자이기도 하다.

저자 부부는 2003년 8월 첫 유 럽 여행을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유럽을 돌며 주로 종교 개혁지를 답사했다고 한다. 이들 은 자신들의 경험을 탐방 프로그 램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싶어 책 을 출간했다. 책은 종교개혁지를 탐방할 때 장소를 왜(WHY) 가 는지, 가서 무엇을(WHAT)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마지막 으로 어떻게(HOW) 접근하고 돌 아보면 좋을지를 소개했다.

각 탐방지 소개에 앞서 책은 ' 탐방을 위한 일곱 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첫번째는 일정기간 종 교개혁사를 공부한 멤버만 참여 하기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서 루터가 누군지 칼뱅이 누군 지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쓰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가능하 면 15인 소그룹으로 이동 ▲현 지 투어 가이드의 해설은 줄이고 전문 해설사 동반하기 ▲전문 인 솔자 활용하기 ▲기존 동선에 꼭 가고 싶은 여행지 반영하기 ▲예 약 필요없는 곳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기 ▲숙소 식사 비용 줄이 더라도 콘텐츠에 투자할 것 등을 꼽았다.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날 때 가 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이다. 종교개혁은 유 럽 전역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다 가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경중 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탈리아/체코·독일/프 랑스·스위스/영국 이렇게 네 지 역으로 나눠 여행 코스를 소개

1. 이탈리아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 잘 알 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개혁 지 답사인데 왜 이탈리아에 가 야 하나? 거기에 무슨 종교개혁 이 있었다고..."라는 의문이 들 것 이다. 저자는 이탈리아를 권하는 이유로 "이탈리아를 봐야 종교 개혁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

2. 체코/독일

이 두 곳은 초기 종교개혁과 관련한 지역이다. 얀 후스가 활 동했던 체코와 마르틴 루터가 활 동한 독일 지역은 종교개혁의 모 판과도 같은 곳이다.

3. 프랑스/스위스

루터 이후 칼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종교개혁이 활발했던 지 역. 저자들은 "기존 종교개혁지 답사 상품들은 주로 루터에게 집 중해서 독일 지역을 돌아다니지 만, 프랑스와 스위스가 종교개혁 지 탐방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다.

4. 영국

영국은 유럽 대륙과 물리적으

로 떨어져 있어 동선 잡기가 어 렵다는 이유로 답사 코스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 국교회의 최대 교파가 장로교회 이고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곳이 스코틀랜드라는 점을 생각한다 면 영국은 뺄래야 뺄 수 없는 답 사 지역"이라고 말한다. 여행 자 체로도 매력적이고, 좀 더 심화 된 답사 경험을 할 수 있다고도 덧붙인다.

책에서 저자가 샘플로 제시하 는 동선은 위 사진과 같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 영국 런 던으로 나오는 11박 12일 코스 다. 이 코스는 종교개혁의 역사 에 따른 시간 순서로 짠 코스다. 저자는 "정해진 샘플 동선 외에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경우 파 리나 에든버러, 런던 중에서 하 루 이틀씩 더 늘리면 되고, 파리 에서 기차를 이용해 라로셸을 당 일치기로 다녀오는 것도 멋진 경 험"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저자가 추천하는 11박 12일 코스. ⓒ세움북스 제공

[신간] 존 비비어의 은사

두란노서원이 존 비비어 대 표(메신저 인터내셔널)의 신 간 〈존 비비어의 은사〉를 출간 했다. 이 책은 은사에 대해 궁 금한 이들을 위해 저자는 주어 고자 집필했다.

저자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은사를 배가하기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은사와 맞는 걸까?' 등 스스로 이런 질 고, 주변 사람을 살리고, 세상

문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사 를 숨겨두셨고, 그것을 발견하 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를 만들어 가길 바라신다"라 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 은사와 그 은사를 개발, 사 은사를 바라보며 가야 한다. 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라면 살펴 그 속에 숨긴 뜻을 삶에 소망한다"라고 했다. 적용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 해 단순히 삶의 목적을 발견하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은사를 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이 발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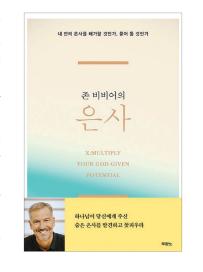
을 선하게 바꾸길 바라다"라 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인생의 목 적을 찾아 해매는 사람, 하나 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슬 픈 사람, 빠르게 돌아가는 세 상 속에서 자신만 멈춰서 있다

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 있다. 년 퍼듀대학교에서 기계공학

을 전공할 당시 하나님을 구주 로 영접하며 그때부터 캠퍼스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1990 년 그의 아내 리사와 함께 '메 신저 인터내셔널(Messenger Intenational)'을 설립하며 미 국, 호주,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지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 또한, 성경을 통찰과 영감으로 이 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길 과 언어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 역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여 한편, 존 비비어 대표는 강연 러 자원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저서로는 〈순종〉, 〈열정〉, 〈 존중〉,〈끈질김〉,〈성령님〉,〈 결혼〉, 〈무엇이 선인가〉, 〈영적



무기력 깨기〉, 〈광야에서〉, 〈구 원〉등이 있다. 최승연 기자



바꾸 바사의 브리콜라주 이 더 무비

영화 〈킹메이커〉(2)

대선 앞두고… '절반의 현실' 반영한 영화, 〈킹메이커〉

목적보다 절차 앞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치공학 선거, '이해와 욕망 표출 방안' 전락한 지 오래 민주주의 이상, 숭고했지만 현실적이진 못해 엄창록 조종. 민주주의 정치 현실 민낯 보여줘

◈자유민주주의의 구조: 몽테스 키외의 삼권분립과 오늘날의 삼 권분립

몽테스키외(Baron de Montesquieu, 1689-1755)는 미국 독 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 중 하나로, 세계사나 정치 교과 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민주주 의 근본 이념을 정교하게 다듬은 공로도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정 치체제의 구체적 구조와 절차를 제안한 것으로 더 유명하다.

그는 궁극적으로 최대한 많은 민중이 정치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체제에 대한 이 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몽테스키외는 이상과 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 또 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엘리트 계층에 속한 인물 이었다. 남작 작위와 봉토를 갖 고 있었고 부유한 귀족가문 아 내를 얻었으며 보르도 지방법원 원장에 취임하기도 했다.

그는 당대의 민중 대다수가 글 자조차 깨우치지 못한 무지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현실을 고 려해서, 단순한 직접민주제로는 민주정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의회는 당대의 지 식층이자 기득권인 귀족에게, 행 정부는 최고권력자인 국왕에게 맡기고, 양측이 협력해 이루어지 는 법 집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을 시민들에게 맡기자는 삼권분 립설을 제안했다.

입법과 행정 기능은 기존의 엘 리트 계층에게 맡기고, 대신 양 측에 부여된 권력이 특정 계층 만을 위해 전횡되지 않도록 견 제하는 힘을 일반 국민들에게 위임하자는 것이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설은 프랑스 구체제 내에서는 받아들 여지지 않았고, 미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 이후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이루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 의회와 행정수반, 그리고 양 측의 협의에 의해 임명된 판사 들로 이루어진 사법부 사이의 상호감시와 견제라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수많은 나라들의 정치 현실에 적용되고 있다.

즉 민중의 정치개입을 사법부 로만 제한하려 했던 원래 삼권 분립설의 의도와 달리, 민주주 의 혁명 이후의 삼권분립설은 세 개의 정치기구 모두에 민의 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 로 삼는다.

몽테스키외가 만약 오늘날 삼 권분립설이 적용되는 방식을 목 격했다면, 동의가 아닌 우려를 표명했을지도 모른다.

몽테스키외는 민중의 양심과 시민의식이 이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 력의 세 핵심 기구 모두가 민의에 휘둘리면 삶의 안정과 번영 대신 분쟁과 퇴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우려는 오늘 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 는 여러 국가들의 삶의 현실 속 에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절차: 정치공 학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몽테스키외 당시의 프랑스에 비 해 시민들의 지식수준이나 정치 의식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높다 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현 대 공교육 시스템과 발전된 미 디어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양 심과 시민의식의 고양은 생각보 다 훨씬 더디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식 측면의 성장 은 빠르지만, 의지 측면의 성장 은 더디다 못해 퇴보하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 이념과 절 차적 원리를 알아도 그에 부합하 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 는 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선거 참모였던 엄창록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킹메이커〉,

는 당연한 일이다. 인류가 본원 적으로 품고 있는 죄성으로 인 해 인간 스스로의 선의지는 분 명한 한계를 보이며, 그 한계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다수를 위하는 민주적 윤리와 개인의 이기적 욕망이 서로 충 돌할 때 거의 대다수의 민중은 우선 후자를 추구한다. 이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사라지 고, 그 절차만 남아 욕망의 도구 로 활용되게 된다.

선거도 이처럼 개인 혹은 집 단의 이해와 욕망의 표출 방법 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말 하는 미국조차도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다. 계몽주의가 그려낸 민 주주의 이상은 숭고했지만 현실 적이지 못했다.

영화 〈킹메이커〉는 이런 점에 서 반쯤은 현실적이고, 반쯤은 비현실적이다. 김대중 전 대통 령의 선거전략가 엄창록이 국회 의원 및 대통령 선거를 정치공 학적으로 조종하는 장면들은 현 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준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적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 기 위해 엄창록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선거운동 진행을 요구하 고 그와 격하게 대립하는 장면 은 감독의 이상이 가미된 허구 일 뿐이다.

실제 역사에서 엄창록이 김대 중 전 대통령과 결별하게 된 이 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1971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중앙정 보부가 엄창록을 납치해서 박정 희 전 대통령을 위해 강제로 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속 설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제기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의 도덕성 을 두고 김대중 후보와 참모인 엄창록이 격하게 대립한 일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당시 김대중 후보가 개인 의 영달과 권력의 전횡만을 추 구하는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었 던 것은 분명하다. 만일 그랬다 면 그가 이후의 한국 정치사에 그만한 공로와 업적을 남길 수 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김대 중 후보가 완벽한 성인군자인 것 도 아니었다. 엄창록의 선거전략 이 다소간 편법적이라도 누군가 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 김대중 후보가 자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치 참모를 지탄하고 내칠 정도로 거 부감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애초 그 정도로 완벽한 도덕 성을 갖춘 인물은 정치계에 커 다란 족적을 남기기 어렵다. 많 은 이해 충돌을 완화해 가며 다 수의 욕망을 적절하게 만족시켜 주는 일은 성인군자가 할 수 없 는 일이다.

실제로 춘추시대 제나라를 패 권국으로 올려놓은 명재상 관중 은 자신이 죽을 때 후임으로 절 친한 벗이자 도덕적으로 고결했 던 포숙을 추천하지 않았다.

제환공은 포숙을 재상으로 삼 으려 했으나, 관중은 포숙의 도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8:00 PM 토요일 09:00 AM~8:00 PM

덕적 고결함이 당시 제나라 정 치현실 속에 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서 제환공을 만류했던 것이다. 관중이 이 때 남긴 말이 "수지청즉무어(水之 淸則無魚)," 즉 "맑은 물에는 고 기가 살 수 없다"는 격언이다.

15

이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선거 현실에도 적용되는 말이 다. 몽테스키외가 우려했던 것 처럼 민의가 좌우하는 삼권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삼권에 민의 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가 장 결정적 방편인 선거 역시 교 활한 정치공학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민주주의의 세부 절차를 신봉 한 나머지 그 원래 목적인 천부 인권, 행복 추구의 자유,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망각하거나 무시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 정 치계의 현실인 듯하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인 입장에 서는 선거로부터 많은 것을 기 대하기 어렵다. 만일 요즘과 같 은 대선 국면에서 교회가 선거 에 깊이 관여하면 할수록 위정 자들과 대중의 정치적 욕망에 휘둘리고 이용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인 개개 인은 정교분리의 신앙원리를 굳 건하게 지키는 가운데, 단지 현실 적으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 한다는 심정으로 투표에 참가하 는 것이 온당한 일로 여겨진다.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 학원 겸임교수)

Tel: 213-739-1022





2021 OPEN STEWARDSHIP PROGRAM RECIPIENTS LIST

ABC Unified School District Education Foundation

All Nations Church Growing-Up Reading Clinic

American Whe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Inc.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Cal G.I.V.E. Foundation

Christian Counseling Services

Circle of Friends in Love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Communities Actively Living Independent & Free

Divorce Recovery Ministry, Inc.

Edenhurst Community Center

East Bay Korean-American Senior Service Center

Family Saver Center

Good Hands Foundation

Good Neighbors USA

Grace Community Service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Happy Village- The Korea Daily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Hyosarangus Mission

IATIA Cherish Mission

Intellichoice

Jesus Love World Mission

KOA Dance Federation

Koinonia Mission

Korean American Coali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nc.

Korean American Dementia Center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nc. (KFAM)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 (KAFLA)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 League of Santa Clara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KAWA)

Korea 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Inc. (KYCC)

L.A. Mom and Dad Mission

Love In Music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Micah Healing Ministry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 (PAVA World)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Shalom Life Line

Siloam Healing Mission Center

Somang Society

South Bay Ko-Am Senior Center, Inc.

Street Company

The Angeles Dream Foundation

The Well Mission

Vision Care Service West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Youstar Foundation (K Town Hope, Inc)

3C Medical Clinic

Accompany Worldwide

EIS Family A38

Father's Table Mission

Fristers

Korean American Seniors Association of OC

LNC (Love & Care) Foundation

Onesimus Jail and Prison Ministry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for the Deaf

This Ability Orchestra Foundation

Texas Milal Mission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대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